

#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CPIC)의 타당화 연구

## A Validation Study on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권 영 옥\*

Kwon, Young Ock

이 정 덕\*\*

Lee, Chung Duk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alidate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CPIC) with Korean children. The subjects were 323 sixth graders from three elementary schools in Seoul. The CPIC Scale (Grych, Seid, & Fincham, 1992),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CDI; Kovacs, 1981) and the 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RCMAS; Reynolds & Richmond, 1978) were used as methodological instruments. The methods for data analyses were Pearson's  $r$ , factor analysis, and Cronbach's.

Eight of the nine initial scales showed acceptable levels of internal consistency. The correlations among the CPIC subscales were assessed and the data were examined with factor analysis. Three factors were extracted and labeled 'Conflict Properties, Self-Blame,' and 'Threat', respectively. The validity of the CPIC subscales was assessed by examining correlations between the CPIC subscales and the CDI and the RCMAS, and the coefficients were significant. The three scales demonstrated good internal consistency (Cronbach's = .86, .81, .79).

### 1.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의 가정 내에서 어느 정도의 부부갈등은 항상 존재하는 것으로 아동이 접하는 매일의 일상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상황이다. 그런

데 가정은 아동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이며 아동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아동 자신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과 환경 그리고 다른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부적응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연구과제라 할 수 있다.

\*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이제까지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부부 갈등이 아동의 행동문제(Johnson & O'Leary, 1987; Jouriles, Murphy, & O'Leary, 1989), 공격성(Johnston, Gonzalez, & Campbell, 1987; Holden & Ritchie, 1991), 비행/반사회적 행동(변영인, 1994; Emery & O'Leary, 1984; Peterson & Zill, 1986) 등과 같은 외현성 문제와 우울증(Johnston et al., 1987; Peterson & Zill, 1986), 불안/위축(Long, Slater, Forehand, & Fauber, 1988; Holden & Ritchie, 1991) 등의 내면성 문제와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 외에도 아동의 사회적 능력(Emery & O'Leary, 1984; Long, Forehand, Fauber, & Brody, 1987), 인지적 능력과 성적평점평균(Long et al., 1987), 학업성취도(조영란, 1993; Westerman & La Luz, 1995)가 부부갈등과 관계가 있다고 한다. 이혼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가족의 해체 그 자체보다는 이혼 전과 후에 발생하는 부부 갈등이 아동문제의 주된 원인임을 나타내고 있다(Emery, 1988; Forehand, Neighbors, Devine, & Armistead, 1994). 그 외에도 최근의 연구로 McCloskey, Figueredo와 Koss(1995)는 학대받는 여성의 아동은 학대받을 위험이 높고 가정폭력은 아동의 일반적인 정신병리를 예측케하는 요인이라고 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루어진 기존의 연구들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가 부부간의 갈등보다는 일반적인 결혼만족이나 결혼적응 혹은 결혼의 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변영인, 1995; 신순옥, 1983; Goldberg & Easterbrooks, 1984; Howes & Markman,

1989; Johnson & Lobitz, 1974; Westerman & La Luz, 1995). 결혼만족과 부부갈등은 서로 연관되는 경향이 있으나 불행한 결혼이 항상 표면적인 갈등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행복한 부부들도 때로 갈등상황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결혼만족이나 결혼적응 척도를 사용한 연구는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다.

한편 부부갈등은 다차원적인 개념이다. 부부갈등은 빈도, 강도, 내용, 해결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겉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다. 갈등에 대한 아동의 반응을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분노가 표현되는 갈등상황(Cummings, Zahn-Waxler, & Radke-Yarrow, 1981), 불안정하게 해결된 갈등(Cummings, Ballard, El-Sheikh, & Lake, 1991), 그리고 아동이 관련된 내용의 갈등(김소향, 1994; Grych, Seid, & Fincham, 1992)일수록 아동의 반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나타낸다. 그러나 흔히 사용되는 부부갈등척도에서는 갈등의 다차원적인 성격은 거의 인식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갈등의 서로 다른 형태나 차원에 따른 부부갈등의 측정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예를 들면, O'Leary-Porter Scale (OPS: Porter & O'Leary, 1980)은 언어적 공격성과 신체적 공격성을 평가하는 단일한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 외의 갈등의 다른 주제들을 다루고 있으나 갈등의 유형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갈등의 전반적인 빈도를 나타내는 전체적인 점수를 보여준다. Forehand와 McCombs(1989)는 갈등의 빈도, 강도, 내용과 아동 앞에서 갈등이 일어나는가를 평가하는 부모 보고식 갈등척도를 개발했으나 아직까지 척도의 유용성을 제시하지 못했다.

다음으로 부부갈등을 아동 자신이 어떻게 지각

하고 평가하는가가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김소향, 1994; Grych & Fincham, 1993)는 점으로 이것은 스트레스원에 대한 아동의 해석이 아동에게 미치는 스트레스의 영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다는 관점(Compas, 1987)과 일치하는 것이다. 아동이 부부갈등을 인식하게 될 때 그들은 다양한 평가를 하며 이에 따라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부부갈등에 대한 부모 특히 어머니의 보고를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보고는 부부갈등 상황에 대해 과소평가 혹은 과대평가를 할 수 있다. 물론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도 실제적으로 일어난 갈등상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객관적인 현상보다도 아동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해석이 아동의 행동이나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Furman & Buhrmester, 1985). 그러므로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갈등의 빈도, 강도, 해결, 내용과 같은 갈등의 다양한 차원과 갈등에 대한 지각을 아동이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필요한 실정이다. 부부갈등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측정하는 것으로 Emery와 O'Leary(1982)의 연구가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단지 갈등의 빈도만을 평가하며 따라서 부부간에 일어나는 갈등의 성질을 파악할 수는 없었다.

최근에 Grych 등(1992)은 아동의 관점에서 부부갈등의 다양한 차원을 평가하는 척도(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CPIC)를 개발했는데, 이 척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유용한 부부갈등 측정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타당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Grych 등(1992)이 개발한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척

도(CPIC)가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 타당하고 신뢰성있는 척도인지를 검증해보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갈등의 개념과 유형

갈등이란 두 개 이상의 대립하는 충동이나 욕구가 동시에 존재하여 해결에 곤란을 느끼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유영주, 1992) 인간생활에 있어서 빈번히 발생하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갈등은 사회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에게 주요한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학자에 따라 갈등을 부정적인 현상으로 보기도 하고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예를 들면, Parsons(1949)는 구조기능주의적인 입장에서 갈등을 일탈행동이라 하였고 갈등이 그 사회를 붕괴시키고 오염시키는 질병이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Coser(1956)는 갈등을 더 이상 질병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조직의 제도화된 유형들의 생동성과 융통성을 유지하는 것이며 사회체계의 계속적인 적응과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하여 갈등의 긍정적 가치를 주장하였다(박재환, 1980, 채인용). Coleman(1984)은 부부간의 상충되는 욕구, 목표, 기대의 불일치를 부부갈등이라고 정의하였고 Galvin과 Brommel(1982)은 두 명 혹은 그 이상의 가족 구성원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상반된다고 믿는 과정이 대단히 복잡하다고 하여 가족 관계적 측면에서 가족 갈등을 정의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Rice(1979)는 갈등을 개인 내면에 있는 서로 상반된 충동, 본능, 가치 등에

의한 긴장의 결과로 생기는 개인내 심리적 갈등, 개인의 욕구가 상대에 의해 좌절될 때 나타나는 공격성, 회피 등이 반복 발생되어 나타나는 개인간 심리적 갈등, 그리고 기대치 않았던 사건들에서 발생하는 상황적 갈등으로 나누었다. 한편 Coleman(1984)은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이성적 갈등과 비이성적 갈등, 표면화된 갈등과 내재적 갈등, 상황적 갈등과 만성적 갈등, 개인적 갈등과 대인적 갈등, 그리고 원초적 갈등과 비원초적 갈등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 2. 부부갈등에 대한 아동의 지각

아동이 부모 사이의 갈등에 노출되는 상황은 아동에게 스트레스를 주지만 갈등에의 노출이 반드시 아동에게 해로운 것만은 아니다. 어느 정도의 갈등은 모든 가정에서 항상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아동은 정서적 문제나 행동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오히려 부모들이 의견의 불일치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아동 자신의 갈등해결 능력의 발달에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상황하에서의 부부갈등이 어떤 과정을 통해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Grych와 Fincham(1990)은 부모 사이의 갈등이 아동에게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주는가는 갈등에 대한 아동의 평가에 의해 중재된다고 제안하면서 갈등이 아동에게 주는 의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동이 부부갈등을 평가하는 데는 정서적인 면과 인지적인 면이 모두 포함된다(김소향, 1994). 정서적인 반응은 아동으로 하여금 갈등상황이 위협적인가 우호적인가를 구분하고 행동을 유발시키게 되며 인지는 상황의 성격과 그에 반응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동이 부부갈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아동이 지각한 위협의 정도, 원인의 귀인과 갈등에 대한 탓을 돌리기, 그리고 갈등에 대한 아동의 대처효율성 등을 들 수 있다(Grych & Fincham, 1993). 부부갈등은 여러 가지로 아동에게 위협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아동은 부모사이의 분노가 자신들에게 향하거나, 한쪽 부모가 다치거나 혹은 부모가 이혼이나 별거하게 될까 등으로 두려워할 수 있다. 갈등이 왜 시작되었으며 누구의 책임인가에 대한 판단도 아동이 부부갈등의 의미를 평가하는데 중요하다(김소향, 1994). 또한 아동이 갈등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친다. 만약 아동이 부모 사이의 갈등에 효율적으로 반응할 수 없다고 느끼면 부부갈등은 아동에게 더 많은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 반면에 갈등이나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나 효능감에 대한 기대가 높으면 아동은 희망적으로 생각하며 효율적인 대처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Compas, 1987). 이 외에도 갈등의 원인을 영속적인 것으로 지각하게 되면 부부갈등이 지속되리라고 기대하게 되며 이로 인해 슬픔, 분노, 걱정, 무력감 등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부부갈등과 아동적응과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부부갈등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측정함으로써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3.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PIC, 1992)

Grych 등(1992)이 개발한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CIPC, 1992)는 시초에 부부갈등의 차원을 설명하는 4개의 하위척도(빈도, 강도, 해

결, 내용)와 부부갈등에 대한 아동의 반응을 나타내는 4개의 척도(자기비난, 위협, 대처효율성, 부부갈등의 원인에 대한 안정성 지각)로 구성되었다. 그 외에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것으로 부부갈등의 예측가능성과 부부갈등에 아동이 연루될 가능성(삼각관계로 명명)의 두 요인이 포함되었다.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는 개발과정에서 시초에는 10개 차원에 총 70문항으로 제작되었으나 예비조사과정에서 항목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낮은 예측가능성척도와 그 외의 몇 문항이 제외되어 9개의 하위척도로 된 5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구성된 척도를 가지고 초등학교 4-5학년 학생 222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하고 이 결과를 되풀이해 보기 위해 114명의 초등학교 5학년생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하는 과정을 통해 타당화 검증을 했다. 타당화 과정을 보면, 우선 9개 하위척도의 내적 합치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삼각관계, 안정성, 그리고 내용의 차원에서 각각 1문항씩 모두 3문항이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4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나머지 48문항으로 된 9개 하위척도간의 상관관계를 내 본 결과 척도들은 서로 관련이 있었으며 특히 빈도와 강도, 빈도와 해결, 강도와 해결, 위협과 대처효율성, 내용과 자기비난 하위척도 등은 .58 -.70의 상관계수를 나타내므로 더 적은 수의 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결과 갈등의 강도, 빈도, 해결을 포함하는 갈등의 성질요인, 갈등에 의해 아동이 느끼게 되는 위협과 대처효율성을 포함하는 위협요인, 갈등의 내용과 자기 비난에 관한 자기비난요인의 3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 3개 요인의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는 재검사 신뢰도와 내적합치도에 의해 신뢰도가 검증되었다. 2주 후의 재검사 신뢰도는 부부갈등의 성질요인이 .70, 위협

요인이 .68, 자기비난요인이 .76이었으며 내적합치도 계수의 범위는 .78 -.90이었다. 또한 부모 보고 부부갈등 척도 및 그 외에 아동적용 지표와의 상관관계에 의해 타당도가 검증되었는데 상관계수의 범위는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의 요인에 따라 .04 -.57( $p < .05$ )로 나타났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6학년 남녀학생 323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Grych 등(1992)이 개발한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의 대상 연령이 만 11세라는 점과 본 척도의 문항을 이해해서 부모사이의 갈등상황에 대해 자신이 느낀 것을 질문지로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조사대상 초등학교의 선정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편중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로구의 D초등학교, 서초구의 B초등학교, 동작구의 S초등학교를 유의표집하였고, 각 학교에서 3개반씩을 선정하여 총 9개반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연구자가 각 학급을 방문하여 담임 선생님의 지도하에 연구목적과 질문지 작성방법을 설명한 후 질문지를 배부해 주고 그 자리에서 작성하도록 해서 이를 다시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는 1996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2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총 346부가 회수되었으나 이중 부실 기재된 것과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323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아동의 일반적 성격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 아동의 일반적 성격

변 수	구 분	빈도 (%)
아동의	남자	163(50.5)
성 별	여자	160(49.5)
아동의	11세	221(68.4)
연 령	12세	102(31.6)
계		323(100)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Grych 등(1992)이 개발한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 조수철과 이영식(1990)에 의해 신뢰도가 검증된 Kovacs(1981)의 아동우울척도, 최진숙과 조수철(1990)에 의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Reynolds와 Richmond(1978)의 아동불안검사가 조사도구로 사용되었다.

1)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

Grych 등(1992)이 개발한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는 9개 하위척도에 총 51문항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9개 하위척도의 내적합치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삼각관계, 안정성, 그리고 내용의 차원에서 각각 한 문항씩 모두 3개 문항이 제외되어 4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척도에 포함된 48문항을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한 후 다시 한국어를 영어로 역번역하는 과정을 거쳐 우리말로 번역하여서 아동학 전공자와 초등학교 교사에게 문장을 검토

받아서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의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아동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표시하도록 했으며 양쪽 부모 모두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아동은 그들 부모가 함께 살았을 때의 상황을 참고해 답변토록 했으나 분석과정에서는 제외시켰다. 각 문항에 대한 점수는 ‘그렇다’는 2점, ‘약간 그렇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0점의 점수가 주어지고 1, 2, 5, 8, 12, 18, 22, 26, 27, 35, 38, 47번 문항은 그 반대로 점수가 주어진다.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점수는 각 문항 점수의 합으로 이루어지며 9개 하위척도별 문항 수는 〈표 2〉와 같다.

〈표 2〉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의 하위척도별 문항수

하위척도	문항수	하위척도	문항수
갈등의 빈도	6	지각된 위협	6
갈등의 강도	7	대처효율성	6
갈등의 해결	6	자기비난	5
갈등의 내용	4	삼각관계	4
		안정성	4

2) 아동우울검사와 아동불안검사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의 점수와 아동우울검사 및 아동불안검사 점수와와의 상관분석을 통해 이론적으로 예측된 상관의 정도와 방향의 일치여부를 알아봄으로써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의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sup>1)</sup>를 검증하였다. 이는 부부갈등이 아동의 우울증(Johns-

1) Carnines & Zeller(1979:17-27)는 사회과학에서 추상적 개념의 실증적 척도를 평가하는 타당도

로써 구성타당도는 이론적 맥락 하에서 측정하려는 개념과 상관의 방향, 정도 등이 이론적으로 추정되어지는 외적기준 지표와의 상관을 봄으로써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며, 사회과학에서 그 적용이 가장 일반화되어 있다고 했다.

ton et al. 1987; Peterson & Zill, 1986), 불안/위축(Long et al., 1988; Holden & Ritchie, 1991)과 관계가 있으며 가정폭력은 아동의 일반적 정신병리를 예측하게 하는 요인(McCloskey et al., 1995)이라는 선행연구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동우울검사 척도는 Kovacs의 아동우울검사(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1981)로 조수철과 이영식(1990)이 번안해 신뢰도 검증을 한 것이며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마다 3개의 서술문이 있으며 정도에 따라 0, 1, 2점으로 평가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동불안검사 척도는 Casteneda, McCandless와 Palermo(1956)의 아동불안검사척도(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를 Reynolds와 Richmond(1978)가 개정한 것으로 최진숙과 조수철(1990)이 번안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것이다. 이 척도는 모두 37항목으로 이항선택형으로 구성되었으며 '예' 경우는 1점 '아니오'인 경우는 0점으로 환산하되 4의 배수 문제는 그 반대로 점수가 주어져서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울 느끼는 아동임을 나타낸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AS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분석되었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아동의 일반적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둘째, 하위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문항간의 내적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의  $\alpha$ 계수를 산출했으며 하위척도간의 관계는 적률상관관계로

검토되었다.

셋째,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척도를 구성하는 하위척도를 변인으로 요인분석하였다. 요인분석의 모델은 주성분 분석모델을, 회전방식은 varimax방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본 척도의 측정값과 이론적으로 상관이 예측되는 척도와 의 적률상관 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요인분석결과 도출된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는 내적합치도 지수인 Cronbach의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 IV. 결과 및 해석

자료분석결과를 우선 9개 하위척도의 내적합치도와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와 이 요인분석에 기초해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결과를 제시하려고 한다.

### 1. 시초척도의 내적합치도와 척도간 상관관계

9개 하위척도의 내적합치도를 Cronbach의  $\alpha$  계수로 산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CPIC 하위척도의 내적합치도

하위척도	Cronbach's $\alpha$
빈 도	0.76
강 도	0.81
해 결	0.63
내 용	0.75
위 협	0.78
대처효율성	0.69
자기비난	0.66
삼각관계	0.75
안 정 성	0.32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4문항으로 구성된 안정성 차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안정성차원을 제외한 나머지 8개 하위척도의 각 문항들은 공통된 차원을 나타내는 문항임을 알 수 있다.

〈표 4〉는 8개 하위척도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표 4〉 하위척도간의 상관관계

낸다.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빈도와 강도, 내용과 자기비난 하위척도들은 꽤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척도간의 높은 상관관계는 이 척도들이 서로 다른 차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거나 공통적인 기본적 개념을 나타냄을 뜻할 수 있다.

	빈도	강도	해결	내용	위협	대처효율성	자기비난	삼각관계
빈도								
강도	.62***							
해결	.45***	.45***						
내용	.30**	.27**	.13**					
위협	.29***	.37***	.20**	.19**				
대처효율성	.33***	.32***	.32***	.16**	.44***			
자기비난	.20*	.17**	.13*	.61***	.24**	.10*		
삼각관계	.17**	.22**	.10*	.29***	.39***	.20**	.30***	

\* $p < .05$  \*\* $p < .01$  \*\*\* $p < .001$

## 2. CPIC 척도의 타당도

Grych 등(1992)이 개발한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CPIC)의 타당도는 내용타당도와 요인분석 및 구성타당도에 의해 검증하였다. 내용타당도는 앞서 조사도구 구성시의 과정을 거쳐서 외국척도를 우리말로 옮긴 후 아동학분야 박사과정 이상의 연구자 4명의 논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8개 하위척도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CPIC)의 구성요인의 타당성을 알아보고 더 적은 수의 차원으로 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는지 검토해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척도의 각각의 차원을 나타내는 하위척도들이 안정성 차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뢰할만한 척도이므로 안정성차원 이외의 8개 하위척도를 요인분석의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절차는 먼저 주성분 분석을

실시한 후 varimax 방식으로 회전시켰으며 각 하위척도들의 요인적재량은 〈표 5〉와 같다.

〈표 5〉 CPIC의 요인행렬표

하위척도	요인 I	요인 II	요인 III
빈도	.81	.18	.14
강도	.78	.14	.23
해결	.77	.02	.06
내용	.18	.86	.06
자기비난	.07	.86	.16
위협	.21	.08	.82
대처효율성	.38	-.09	.62
삼각관계	-.05	.33	.71
고유값	2.98	1.39	1.05
설명변량(%)	37.31	17.32	13.17
총설명변량	67.8%		

〈표 5〉의 요인행렬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고유값이 1보다 큰 요인만을 추출해보면 8개 하위척도가 3개의 요인에 적재되어 전체변량의 67.8%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요인적재량이 보통  $\pm 0.4$  이상일 때 유의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재량이 0.4 이상인 경우만 선정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요인 I 은 전체변량의 37.31%를 설명하고 있는 주요인으로서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의 빈도, 강도, 해결에 관한 하위척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차원들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의 부정적인 형태를 나타내므로 부부갈등의 성질이라 명명할 수 있다. 요인 II 는 전체변량의 17.32%를 설명하고 있으며 부부갈등의 내용이 아동 자신과 관련된 것인지 혹은 아동 자신과 관련이 없는 것인지를 나타내는 내용차원과 자기비난차원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이 부부갈등의 탓을 자신에게 돌리는 경향은 부부갈등의 주제가 아동에 관한 것인 경우와 서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 요인은 자기비난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전체변량의 13.17%를 차지하고 있는 요인 III 은 부부갈등으로 인해 자녀가 느끼게 되는 위협차원, 갈등에 대한 대처효율성차원, 부모사이에서 갖게 되는 곤란한 느낌에 관한 삼각관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협요인이라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요인분석결과와 Grych 등(1992)의 요인분석결과를 비교해 보면, 안정성차원과 삼각관계차원을 제외하고는 유사한 요인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초척도의 분석과정에서 내적합치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 안정성차원을 제외하고 8개 하위척도를 변인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나 Grych 등(1992)은 서로 다른 두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9개 하위척도의 내적합치도가 모두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나서 9개 하위척도를 요인분석의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Grych 등(1992)의 연구에서 첫번째 집단의 요인분석결과를 보면 갈등의 빈도, 강도, 해결, 안정성 차원이 한 요인에 부하되었고 내용과 자기비난차원이 또 다른 한 요인에 부하되며 위협, 대처효율성, 삼각관계 차원이 나머지 요인에 부하되어 안정성 차원을 제외하고는 본 연구와 일치하는 요인구조를 나타냈다. 두번째 집단의 요인분석결과에서는 갈등의 빈도, 강도, 해결이 한 요인에 부하되고 위협, 대처효율성이 같은 요인에 묶이며 내용, 자기비난, 삼각관계, 안정성차원이 세 번째 요인에 부하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얻어진 요인분석결과와 Grych 등(1992)의 요인분석결과는 안정성차원에서만 차이가 있고 그 외의 차원은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척도와 정적 상관이 예측되는 아동우울검사(CDI; Kovacs, 1981) 및 아동불안검사(RCMAS; Reynolds & Richmond, 1978)와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여서 구성타당도를 살펴보았다. 이는 선행연구들에 의해 보고된 결과에 의해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부부갈등이 아동의 우울증(Johnston et al., 1987; Peterson & Zill, 1986), 불안/위축(Long et al., 1988; Holden & Ritchie, 1991)과 관계가 있으며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부부간의 언어적 갈등과 폭력은 아동의 일반적 정신병리를 예측하게 하는 요인(McCloskey et al., 1995)임이 보고되었다.

상관계수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아동우울검사 점수와 아동불안검사 점수를 각각 표준화시켰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개의 요인이 모두 아동우울검사 및 아동불안검사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와 이론적 맥락에서 관

련된 외적변수들과의 예측된 상관을 밝힘으로써 본 척도의 구성타당도에 관한 하나의 증거를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Grych 등(1992)이 CPIC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CPIC의 3개 요인과 아동우울검사 및 아동불안검사와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3~.5의 상관계수를 얻은 것에 비해서는 약간 낮은 상관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6〉 CPIC와 아동우울검사 및 아동불안검사와의 상관계수

	요인 I	요인 II	요인 III
아동우울검사	.22***	.24***	.38***
아동불안검사	.28***	.34***	.29***
전체 점수	.27***	.32***	.36***

\*\*\* $p < .001$

### 3. CPIC 척도의 신뢰도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CPIC; Grych et al., 1992)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합치도를 구체적인 계수로 반영해주는 Cronbach의  $\alpha$ 계수를 산출했다. 그 결과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만족할 만한 수준을 나타냈다. 따라서 각각의 요인들은 연구에서 요구되는 내적합치도의 하한수준인 .70을 넘고 있음(Nunnally, 1978)을 알 수 있다.

〈표 7〉 요인별 신뢰도계수

요 인	Cronbach's $\alpha$
요인 I	.86
요인 II	.81
요인 III	.79

이는 Grych 등(1992)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 요인별 내적합치도 Cronbach의  $\alpha$ 계수와 비슷한 수준이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한 신뢰도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또한 요인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2주 후에 재검사 신뢰도를 구한 결과 요인 I 이 .70, 요인 II 가 .76, 요인 III 이 .68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안정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재검사 신뢰도를 검증하지 못했다.

## V. 요약 및 결론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부부갈등이 아동의 공격성, 비행 등과 같은 외현성 문제와 우울증, 불안 등의 내면성 문제와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루어진 부부갈등과 아동문제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된 부부갈등척도에서는 갈등의 빈도, 강도, 내용, 해결 등과 같은 갈등의 다차원적인 성격은 거의 인식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부부갈등의 서로 다른 형태나 차원에 따른 갈등의 측정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왔다. 또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부부갈등에 대한 부모의 보고를 사용해왔다. 그러나 부부갈등을 부모가 평정할 경우 부모간의 갈등상황에 대한 아동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해석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모 사이의 갈등상황에 노출됨으로써 아동이 받게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부부갈등의 다양한 차원에 대한 아동 자신의 지각과 평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에 Grych 등(1992)은 아동의 관점에서 부부갈등의 다양한 차원을 평가하는 척도

(CPIC)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가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검증과정이 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Grych 등(1992)이 개발한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CPIC)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하에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CPIC)의 번역, 역번역과정을 거쳐 총 48 문항으로 구성된 아동평가용 설문지를 제작하여서 서울시 소재 3개 초등학교 6학년 남녀 아동 32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9개 하위척도의 문항들이 공통된 차원을 측정하는 문항인지 알아보기 위해 내적합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의  $\alpha$ 계수를 산출한 결과 안정성 차원을 제외하고는 만족할 만한 수준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안정성하위척도의 신뢰도 계수가 .32로 나와 매우 낮은 수준이나 Grych 등(1992)의 연구에서는 .6이상의 결과를 보여서 안정성 척도의 신뢰도에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외국의 조사도구를 받아들여 사용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타당성 검증과정이 요구되며 이러한 타당성 검증과정이 없이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정확한 현상파악이나 해석에 무리가 생길 수 있다. 안정성차원을 제외시킨 8개 하위척도의 상관계수를 구해 본 결과 몇몇 하위척도간에 상당한 수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척도의 구성요인을 파악하고 더 적은 수의 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8개의 하위척도를 변인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3개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이 3요인에 의한 설명변량은 67.8%였다. 도출된 3개 요인은 요인 I이 갈등의 성질, 요인 II가 자기비난, 요인 III이 위협으로 명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Grych 등(1992)의 요인분석결과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한편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CPIC)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본 척도와 아동우울검사(CDI; Kovacs, 1981) 및 아동불안검사(RCMAS; Reynolds & Richmond, 1978)와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r = .22 \sim .38 (p < .001)$ 로 나타나 3개 요인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 본 척도의 구성타당도의 한 증거를 제시했다. 또한 본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의  $\alpha$ 계수를 산출한 결과 요인별로 .86, .81, .79로 나타나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

이상에서 밝혀진 본 척도의 타당도검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Grych 등(1992)이 개발한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CPIC)는 안정성차원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의 관점에서 부부간의 갈등을 평가할 수 있는 비교적 타당하고 유용한 도구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러나 아동보고식의 부부갈등척도는 아동이 갈등에 대한 그들의 주관적 반응과 관계없이 얼마나 타당한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고 갈등의 빈도, 강도, 해결 등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차원들은 아동이 그러한 차원간의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내 일부 초등학교 아동을 유의표집했으며 임상집단과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앞으로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아동의 우울검사와 불안검사와의 다른 외적준거를 사용하여 본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고 재검사 신뢰도를 산출하는 등의 보완적인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소향(1994). 부부갈등에 대한 아동의 감정적 평가와 인지적 평가.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재환 역(1980). 갈등의 사회적 기능. 서울:한길사.
- 변영인(1994).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및 양육태도와 이탈행동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순옥(1983). 부모의 양육태도 및 부부간 결혼적응과 아동의 부적응 정서행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영주(1992). 신가족관계학. 서울:교문사.
- 조수철, 이영식(1990). 한국형 소아우울척도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29(4), 943-956.
- 조영란(1993). 부부의 갈등과 자녀의 학업성취도와의 상관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진숙, 조수철(1990). 소아불안의 측정. *신경정신의학*, 29(3), 691-702.
- Carmine, E. G., & Zeller, R. A. (1979). *Reliability and validity assessment*. Beverly Hills, CA.:Sage Publicant Inc.
- Coleman, J. C. (1984). *Intimate relationships, marriage and family*. Indianapolis :The Bobbs Merrill.
- Compas, B. E. (1987). Coping with stres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01, 393-403.
- Cummings, E.M., Zahn-Waxler, C., & Radke-Yarrow, M. (1981). Young children's responses to expressions of anger and affection by others in the family. *Child Development*, 52, 1274-1281.
- Cummings, E. M., Ballard, M., El-Sheikh, M., & Lake, M. (1991). Resolution and children's responses to interadult anger. *Developmental Psychology*, 27, 462-470.
- Emery, R. E. (1988). *Marriage, divorce, and children's adjustment*. Newbury Park, CA:Sage.
- Emery, R. E., & O'Leary, K. D. (1984). Marital discord and child behavior problems in a nonclinic sampl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2, 411-420.
- Emery, R. E., & O'Leary, K. D. (1982). Children's perceptions of marital discord and behavior problems of boys and girl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0, 11-24.
- Forehand, R., Neighbors, B., Devine, D., & Armistead, L. (1994). Interparental conflict and parental divorce. The individual, relative, and interactive effects on adolescents across four years. *Family Relations*, 43, 387-393.
- Forehand, R., & McCombs, A. (1989). The nature of interparental conflict of married and divorced parents:Implications for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7, 235-249.
- Furman, W., & Buhrmester, E. (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016-1024.
- Galvin, K. M., & Brommel, B. J. (1982). *Family communication: cohesion and change*. Illinois: Scott, Foresman and Co.
- Goldberg, W. A., & Easterbrooks, M. A. (1984). Role of marital quality in toddler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0, 504-514.
- Grych, J. H., & Fincham, F. D. (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 267-290.
- Grych, J. H., & Fincham, F. D. (1993). Children's appraisals of marital conflict: Initial investigations of the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Child Development*, 64, 215-230.
- Grych, J. H., Seid, M., & Fincham, F. D. (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perspective: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63, 558-572.
- Holden, G. W., & Ritchie, K. L. (1991). Linking extreme marital discord, child rearing, and child behavior problems: Evidence from battered women. *Child Development*, 62, 311-327.
- Howes, P., & Markman, H. J. (1989). Marital quality and child functioning: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Child Development*, 60, 1044-1051.
- Johnson, P. L., & O'Leary, K. D. (1987). Parental behavioral patterns and conduct disorders in girl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 573-581.
- Johnson, S. M., & Lobitz, G. K. (1974). The personal and marital adjustment of parents as related to observed child deviance and parenting behavio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 193-207.
- Johnston, J. R., Gonzalez, R., & Campbell, L. E. (1987). Ongoing post-divorce conflict and child disturba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 497-509.
- Jouriles, E. N., Murphy, C. M., & O'Leary, K. D. (1989). Interspousal aggression, marital discord, and child problem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 453-455.
- Long, N., Forehand, R., Fauber, R., & Brody, G. (1987). Self-perceived and independently observed competence of young adolescents as a function of parental marital conflict and recent divor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 15-27.
- Long, N., Slater, E., Forehand, R., & Fauber, R. (1988). Continued high or reduced interparental conflict following divorce: Relation to young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467-469.
- McCloskey, L. A., Figueredo, A. J., & Koss, M. P. (1995). The effects of systemic family violence on children's mental health. *Child Development, 66*, 1239-1261.
- Nunnally, J. (1978).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McGraw-Hill.
- Peterson, J. L., & Zill, N. (1986). Marital disruption,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295-307.
- Porter, B., & O'Leary, K. D. (1980). Marital discord and childhood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8*, 287-295.
- Rice, F. P. (1979). *Marriage and parenthood*. Boston: Allyn and Bacon Inc.
- Westerman, M. A., & La Luz, E. J. (1995). Marital adjustment and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Merrill-Palmer Quarterly, 41*, 453-470.

## 부 록

###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 (CPIC)〉

하위척도	질문번호	문	항
부부갈등의 빈도	1	나는 우리 부모님이 다투거나 의견이 맞지 않는 것을 본적이 없다.	
	9	우리 부모님은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자주 다투시거나 의견이 맞지 않으신다.	
	14	우리 부모님은 내가 옆에 있더라도 자주 서로에게 나쁘게 하신다.	
	17	나는 부모님이 다투시는 것을 자주 본다.	
	26	우리 부모님은 거의 다투시지 않는다.	
	34	우리 부모님은 집안에서 서로에게 자주 잔소리와 불평을 하신다.	
강도	4	우리 부모님은 다투실 때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신다.	
	12	우리 부모님은 의견이 맞지 않으실 때 조용히 의논하신다.	
	21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는 서로에게 나쁜 말이나 욕을 하신다.	
	30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는 큰소리를 많이 지르신다.	
	35	우리 부모님은 의견이 맞지 않으실 때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시는 적이 거의 없다.	
	37	우리 부모님은 다투시는 중에 물건을 부수거나 던진 적이 있다.	
	42	우리 부모님은 다투시는 도중 서로 밀치거나 떠민 적이 있다.	
해결	2	우리 부모님이 다투시면 보통 잘 해결이 된다.	
	10	우리 부모님은 다투신 후에도 서로에게 화를 풀지 못하신다.	
	18	우리 부모님은 어떤 일에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대부분 해결책을 찾아 내신다.	
	27	우리 부모님은 다투신 후 보통 금방 사이가 좋아지신다.	
	38	우리 부모님은 다투신 후에도 서로에게 다정하시다.	
	45	우리 부모님은 다투고 난 후에도 여전히 서로에게 나쁘게 하신다.	
내용	3	우리 부모님은 나의 학교일 때문에 자주 다투게 된다.	
	19	우리 부모님은 보통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다투신다.	
	28	우리 부모님은 평소에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다투시거나 의견이 맞지 않는다.	
	36	우리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종종 다투시게 된다.	
지각된 위협	6	나는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겁이 난다.	
15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나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한다.		
23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면 나는 나쁜 일이 일어날까봐 두렵다.		
32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어머니 아빠가 다치실까봐 걱정된다.		
39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나에게도 소리를 지르실까봐 두렵다.		
44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이혼을 하실까봐 나는 두렵다.		

대처	5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나는 나의 기분이 좀 나아지도록 무언가 할 수 있다.
효율성	13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나는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
	22	우리 부모님이 다투시거나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나는 대부분 일이 잘 되도록 도울 수 있다.
	31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나는 부모님이 그만 하시도록 할 수가 없다.
	43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나는 내 자신의 기분이 나아지도록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48	우리 부모님은 다투실 때 내가 말하는 것은 전혀 듣지 않으신다.
자기비난	8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그것은 내 탓이 아니다.
	16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그것은 흔히 내 탓이다.
	25	부모님이 말하시지 않아도 나는 우리 부모님이 다투시는 것이 내 탓임을 안다.
	40	우리 부모님은 다투실 때 내 탓이라고 하신다.
	47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보통 그것은 내 탓이 아니다.
삼각관계	7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나는 부모님 사이에 낀 것같이 난처하다.
	24	우리 엄마는 아빠와 다투실 때 내가 엄마 편을 들기 원하신다.
	33	나는 우리 부모님의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어느 한쪽 편을 들어야 할 것처럼 느낀다.
	41	우리 아빠는 엄마와 다투실 때 내가 아빠 편을 들기 원하신다.

#### 〈제외된 문항〉

부부갈등의	11	우리 부모님은 서로 행복하지가 않아서 다투신다.
안정성	20	우리 부모님이 다투시는 이유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29	우리 부모님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투신다.
	46	우리 부모님은 서로 사이 좋게 지내시는 방법을 몰라서 다투신다.

2) 질문지 번호는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CPIC)의 타당화를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조사지 번호로서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항 번호와 일치된다.